

## 동정

- 회원사
- 관련기관

## 한진그룹

### 주파수공용통신(TRS) 사업권 획득에 총력

한진그룹(회장 조중훈)이 주파수공용통신(TRS : TRUNKED RADIO SYSTEM)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한진그룹의 TRS 사업 참여는 단순히 미래 유망산업으로서의 정보통신산업 진출이라는 일방적인 사업영역 확대나 사업구조 변신전략과는 달리 수송·물류사업에 있어서 글로벌 네트워크(GLOBAL NETWORK)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진그룹은 이미 지난해부터 그룹내 항공 및 운송분야의 자가 TRS망 구축을 위한 제반기술 검토를 마치고 정부로부터 TRS 주파수 사용허가의 취득완료, 그룹내 전문 기술인력과 연구소 및 자문교수 등 50여명의 전문인력을 풀가동하여 「전국 TRS 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대규모 이용자 그룹 및 중견 중소기업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도 완성단계에 이르는 등 TRS전국사업권 획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진그룹은 이 사업을 위해 총 1천억원을 투입, 데이터베이스, 이동체 위치추정 시스템(GPS)을 통한 차량위치추적서비스, 고품질 음성서비스, 물류분야의 글로벤(GLOVAN)과 연계한 TRS서비스의 고급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내륙은 물론 항만, 해안까지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송·물류기업, 식음료 기업, 대형 현장관리가 필요한 기업, 방송, 금융기업 등 인류, 물류와 관련된 모든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나래이동통신

### 재택근무제 도입

나래이동통신(대표 김종길)이 사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재택사원을 선발해 가정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담당케하는 “재택근무제”를 도입, 지난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래이동통신은 이를 위해 최근 1차로 재택근무사원 22명을 선발해 전산교육 및 상담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재택근무사원의 PC자체 전산프로그램인 “NICE” 시스템과 고객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연결하는 재택근무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재택근무 사원들은 멀티미디어 PC와 전화기, 무선호출기 등을 지급받아 고객과의 직접통화를 통해 요금 자동이체 및 고객 정보 변경, 고객 정보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 고객 DB구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한국이동통신

### CDMA서비스 수도권, 대전지역 확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가 이달 3월 15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과 대전지역으로 확대된다. 최근, 한국이동통신(대표 서정욱)은 지난 1월 1일부터 인천, 부천지역에서 시작한 CDMA 상용서비스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돼 3월 15일부터 서비스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서비스지역은 서울, 과천, 광명, 고양, 성남, 대전 등으로 이들 지역은 전국 이동전화 가입자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CDMA 상용서비스의 실질적인 성공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동통신은 이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전지역에 3대의 교환기와 1백60여개소의 기지국을 설치했으며 기존 아날로그 방식과의 연동은 물론, 운용보전 시스템 및 고객관리시스템과의 연동기능도 갖췄다고 밝혔다.

한국이동통신은 CDMA 서비스 보급확대를 위해 올해안으로 수도권 주변도시와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제주 등 전국 시단위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LG-EDS시스템

### 통신보안체계 강화

LG EDS시스템(대표 손범수)이 자사의 정보시스템에 방화벽 구축을 통한 통신보안 체계를 강화했다고 최근 밝혔다. LG EDS시스템은 인터넷 이용 급증과 함께 해

커로부터 침입을 막기위한 보안장치  
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방화  
벽을 구축하고 인터넷에 접속하  
려는 ID를 선별한후 인터넷 서  
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 폭발적인 인터넷 이용자 증가  
에 따라 사용자의 철저한 보안의식  
과 더불어 그룹차원의 보안대책수  
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앞으로 LG  
그룹 전체로 방화벽 구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콤텍시스템

### 킨코스코리아에

####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콤텍시스템(대표 남석우)은 사  
무자동화서비스 제공업체인 킨스  
코리아에 국제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최근 밝혔다. 콤텍시스  
템이 이번에 구축한 국제화상회의  
시스템은 국제 종합정보통신망  
(ISDN)을 이용해 국가간에 영상  
화면을 통해 초고속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다.

이 화상회의시스템은 미국 화상  
회의시스템 전문회사인 픽처텔사  
의 "시스템2000"으로 대형 모니터  
를 비롯해 카메라, 마이크, 데이터  
뷰어 등을 이용해 국제회의는 물론  
교육, 강연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킨코스코리  
아는 이달부터 국내에 출장은 바이  
어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국제간  
화상회의를 원하는 국내 기업체들  
에게도 이 화상회의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 서울이동통신

### 통신용 에뮬레이터 개발

수도권 무선호출사업자인 서울  
이동통신이 어느 사업자의 가입자

이든지 문자호출을 할 수 있는 통  
신용 에뮬레이터를 개발했다.

최근 서울이동통신(대표 이봉  
훈)은 지난해 11월 한글무선호출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배포한 도스  
용 프로그램인 "STEL"에 이어  
MS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STEL WIN N1.0"을 제작, 배포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이텔, 나우누리 등 PC통신 공  
개자료실을 통해 무상 배포하는 이  
프로그램은 서울이동통신 뿐만아  
니라 한국이동통신, 나래이동통신  
등 모든 사업자들의 가입자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것이 큰 특징이다.

특히 명령어를 아이콘으로 만들  
어 모든 기능을 마우스만으로 조작  
할 수 있으며 호출메시지 보관, 수  
신메시지 조회, 부재중 안내 등록  
· 해제, 비밀번호 변경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한화전자정보통신

### 러시아서 YRX 협력계약

한화전자정보통신(대표 공태근)  
이 러시아에서 전자교환기 2만5천  
회선을 개통했다.

한화전자정보통신은 최근 러시  
아 페름주에서 YRX-1B 및  
ODEX-100개통식을 가졌다고 밝  
혔다. 이번 계약으로 한화전자정보  
통신이 러시아에서 개통한 교환회  
선은 지난 93년 20만회선, 94년 4  
만회선을 포함해 26만 5천회선에  
이르게 됐다.

## 한국전산원

### 연구보고서 발표

폐기물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효  
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폐기  
물 관리업무에 전자문서교환(EDI)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  
다. 한국전산원(원장 이철수)이  
발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EDI연  
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연간처  
리 실적보고와 관리대장을 통해 이  
뤄지고 있는 폐기물관리 업무행태  
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무  
단투기 및 유출과 같은 환경문제에  
즉각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업무에도 EDI도입을  
통한 폐기물 관리자동화가 필요하  
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현행 폐기물 관리업  
무로는 특정시점에서의 폐기물 현  
황 파악이 어려울뿐만아니라 폐기  
물처리 업체로부터 일시에 보고서  
를 수집,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재  
입력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쌍용정보통신

### 기술정보관리시스템, 공급 급증

쌍용정보통신(SICC 대표 김용  
서)이 국내 기업에 구축해오고 있  
는 기술정보 관리 시스템인 이미지  
아트, 메타페이지 등의 공급이 올  
들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이 시스템의 국내 공급으  
로 3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던  
SICC는 최근 환경관리공단을 비  
롯해 호남석유화학, 한국전력기술,  
경남에너지 등 10여개 업체에 이  
시스템을 신규 또는 확장 구축키로  
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이 분야  
영업의 급진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처럼 기술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에 적극적인 것은 업  
무혁신과 관련된 최근의 컴퓨팅 신  
조류인 CALS와의 연계선상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설계도와 기술도  
면 등 각종 기술관련 정보들의 효

올직인 관리를 통해 업무혁신을 기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SICC의 기술정보관리시스템은 기업체 및 관공서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량의 설계도나 기술도면을 입력장비인 스캐너를 이용해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 사용자들의 컴퓨터와 연결, 공유함으로써 필요시 자신의 책상위에서 신속하게 관련도면을 조회, 편집, 수정, 전송 및 프린트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이시스템은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통신망의 제약이 없는 뛰어난 확장성과 함께 기존 장비 및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 그래픽, 캐드등 다양한 데이터 저장양식을 지원하는 높은 호환성때문에 투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데 이 콤

### 갤럽여론조사DB, 천리안매직콜 통해 제공

데이콤(대표 손익수)은 최근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구인 '갤럽 인터내셔널'의 한국 측 가입회원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16일부터 갤럽DB 서비스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갤럽DB'는 갤럽이 '9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실시한 1만3천여건의 방대한 여론/마케팅조사 결과를 DB화한 것으로써 정치, 경제, 산업, 정보통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업의 경영기획 및 수요조사와 영업, 마케팅에 필수적인 시장자료를 비롯해 정치, 행정을 비롯한 사회분야별

전문 연구자료, 경제생활지표, 라이프스타일 등 한국인의 생활지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각 기업체나 연구소, 정당 등에서 시사각각으로 변하는 소비자의 기호나 유권자의 성향변화 등을 정확하게 감지해서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데이콤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단순히 갤럽DB를 제공하는 것에서 탈피, 온라인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실시간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천리안 매직콜 처음화면에서 <16. 경제/산업>, <88.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차례로 선택하거나 아무 화면에서 <go GALLUP>을 입력하면 되고 이용요금은 분당 4백원이다.

## 한국 IBM

### 경영동반자현장 선포

한국IBM(대표 오창규)은 협력업체에 대한 자사의 지원 의지 및 공동 협력 방안을 담은 '한국IBM 경영동반자현장'을 지난 15일 오후 4시 63빌딩에서 100여개 협력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했다.

이번 경영동반자 현장 발표는 종래 중대형컴퓨터를 중심으로 해 왔던 IBM이 중소형 시스템, PC,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등과 궁극적으로는 통합 네트워크중심 컴퓨팅 환경으로 변화해 가는 시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직판 체제에 치중해 왔던 영업방식에서 탈피, 국내의 우수한 기술 인력과 전문 솔루션을 갖춘 기업과 손잡고, 이들 협력 회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최근 급

부상하고 있는 중소형 시스템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한국IBM 경영동반자 현장은 6개 영업 부문별로 협력 방안과 관계 증진에 필요한 지침을 담고 있으며, 향후 네트워크 중심 컴퓨팅 환경을 대비하여 유통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현장을 계기로 한국IBM은 향후 중소형 솔루션 시장은 협력업체들이 가능한한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 분야의 응용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서비스는 경영동반자사가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판매하는 반면, 한국IBM은 하드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이언트/서버, 객체지향프로그램 등과 같은 기반 제품과 기술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수요 창출을 위해 필요한 영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협력업체의 영업을 측면 지원하게 된다.

## 현대정보기술

### 현대그룹사의 이사제 본격 가동

현대정보기술(대표 김택호)은 29일 본사 회의실에서 2명의 사내 이사와 4명의 사외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96년도 1차 사외이사회를 개최했다. 사외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는 한국전산의 이철수원장과 중앙대학교의 김효석교수 등 2명의 외부인사와 박세남 현대그룹 종합기획실장, 그리고 김중웅 현대경제사회 연구원장으로 구성되었다.

현대정보기술은 그룹외의 사외 이사로 한국데이터통신 올림피아사업단 단장을 역임하면서 지난 서울올림픽의 전산망 구축과 관리를 맡는 등 전산, 정보통신 분야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철수원장과 리엔지니어링의 한국적 방법론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바 있고, 경영정보학 분야에 권위있는 인물로 알려진 김효석교수를 영입한 것은 이들이 정보서비스 사업을 펼쳐가고 있는 현대정보기술의 정책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인물로 선임되었기 때문이다.

## 현대전자

### 인터넷 서비스

#### “아미넷” 5월 상용화

현대전자(대표 정몽헌)가 인터넷 및 PC통신서비스인 아미넷을 오는 5월 부터 상용화한다.

현대전자는 최근 종합전시장에서 아미넷 발표회를 열고 오는 3월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가 2개월동안 시험 기간을 거쳐 5월부터 상용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미넷은 인터넷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인터넷을 통해 PC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위해 현대전자는 사용자에게 전자우편·HTML편집기·대화도구·인터넷 등록기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아미웨어”라는 소프트웨어군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 정통부 산하

### CALS.EC기술협회 출범

광속거래(CALS)와 전자거래(EC)분야의 기술개발과 표준화사업무등을 담당할 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CALS.EC기술협회가 최근 신라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국내 산업체들의 CALS도입을 촉진하고 대내외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해 창립되는 CALS.EC기술

협회에는 통신사업자 시스템통합(SI)업체와 정보통신 관련연구기관 등 관련업체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출범한 정통부 산하의 CALS.EC기술협회는 주로 통신사업자나 SI업체들을 회원사로 공공지 측면의 역할을 맡게 된다.

### 스마트카드 개발사업자 선정

정보통신부는 IC카드 국산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고시한 스마트카드 개발 사업자로 서울대 IC카드 연구센터와 함께 삼성전자·현대전자·백두정보기술 등 3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관련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이들 업체와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10억여원을 투입, IC카드의 핵심기술인 칩융용체계(COS)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 IC카드연구소 COS개발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3개업체가 공동으로 스마트카드 개발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 LG 정보

### 통신장비 자체 형식검정 획득

LG정보통신(대표 정장호)은 자사의 무선통신장비에 대해 형식검정 시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LG정보통신이 이번에 자체 형식검정을 획득한 분야는 무선호출국용 장치를 비롯해 주파수공용통신(TRS)시스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 등 기지국 장비·단말기 등이다.

이에 따라 LG정보통신은 그동안 무선통신장비에 대한 형식검정을 전파연구소로 직접 받는 불편을 해소, 무선통신장비에 대한 적기 출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LG정보통신은 지난달말부터 형식검정 시험기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삼성데이터시스템

### 유니텔 가입 10만돌파

삼성데이터시스템의 컴퓨터통신 유니텔 가입자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삼성데이터시스템(대표 남궁석)은 최근 유니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하루 평균 1천5백명의 가입자가 쏠려, 지난 2월 15일 현재 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유니텔 가입자 가운데 20대가 49.6%로 주류를 이루었으며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74.7%를 차지하고 있다.

## 한국통신

### 민간 상업DB 2백억원 지원

한국통신은 올해 2백억원을 투입해 민간 데이터베이스(DB)사업자들에게 개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한국통신(대표 이준)은 94년부터 시작한 민간상업DB 개발지원 사업 계획을 확정, 지난 15일 한국통신 연구개발원에서 사업설명회를 갖은바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DB개발 지원금 규모는 모두 2백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이며 연리 6%,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한국통신은 지난 94년에 시범사업으로 10개 DB개발에 18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7개 DB개발을 위해 2백9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오는 97까지 1천6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